제 366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9년 1월 17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미자립 농어촌 100교회 후원 손길

지난주 마감… 가정 · 다락방 등 총 65. 5구좌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이하 '100교회운동')에 참여할 후원자 신청 접수를 지난 주로 마감했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 이웃과 나누고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와 교회 내 기관들이 예년과 같이 '100교회운동' 에 참가 신청을 해왔다.

올해 100교회운동 후원자를 살펴보면 개인 · 가정이 34구좌, 위원회 3구좌, 다락방 1.5구좌, 교회학교(교사) 1구좌, 찬양대 1구좌,남녀전도회 23구좌, 기타 1구좌등 총 65.5구좌이다. 농어촌 한 교회 후원금(1구좌)는 10만원으로 매월 셋째 주에 농어촌 각 교회로 송금하게 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후원자들이 지원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재검토해서 후원자와의 결연을 확정짓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청을 한 올해의 후원자 명단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100교회운동은 우리 교회설립 3주년 기념일에 결의되어 1995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도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에 힘을 주어 자립하도록 돕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새 예배당 건축 현장

13일(수) 제 1권사회원들이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을 찾아 건축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5일(금)엔 흙막이를 위한 기둥세우기 공사가 완료됐다.

교역자 이동으로 새 틀 구성

연말연시에 교역자들의 이동이 있음에 따라 새로 교역자를 청빙하는 등 지도 교역자를 변경했다.

교회는 지난 해 12월 첫 주부터 새해의 각 부 지도 목사를 임명 발표하고 새해를 준비했으나 최근 세 분의 부목사가 각각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어 우선 교육부서를 맡을 신학생 두 분과 새가족부를 맡을 여전도사 한 분을 새로 모시게 됐다.

한편 당회는 연초에 타교회에서 시무하고 계신 교역자를 청빙함으로 다른 교회의 목회에 차질을 주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목사 청빙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도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1. 교구 담당
   3, 4, 9, 10, 11, 12교구: 박귀환
   1, 2, 5, 6, 7, 8교구: 이성득
2. 교회학교 지도
   중등부: 정홍재 고등부: 정대일
   청년부: 이만열, 정홍재 새가족부:지혜영
3. 기관 지도
   교회갱신연구원, KIMCHI: 박귀환
   스데반회, 출판국, 장학회, 비전2020:이성득
   제 1 · 2권사회: 지혜영

▶ 새 교역자 프로필

지혜영 전도사
'41년생
이화여대졸
성결신대원졸
청운교회,
산성교회 시무

정홍재 신학생
'68년생
영남대졸
장신신대원 재
견습선교사
(몽골)

정대일 신학생
'72년생
한남대졸
장신신대원 졸
견습선교사
(폴란드)

이사야 강해

선지자의 탄식

이사야 15장 6 - 9절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은 모압과 앗시리아와 바벨론이 모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향하여 예언하는 중에 그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면서 모압의 사방에 곡성이 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모압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모압 도성과 거민이 무너져서 그들이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당할 고통은 경제적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모압에 오는 기근의 시작은 북쪽으로 흐르는 니므림 물이 마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목축업과 농업을 하는 시대인데 강물이 마르게 되면 먼저 풀과 곡식이 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기근이 오므로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에는 전쟁이 일어나므로 침략자가 맑은 니므림 물에 돌과 나무를 넣어서 강을 메우므로 마침내는 물줄기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근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군대가 푸른 초장을 짓밟고 물줄기를 끊으니 당연히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발하시는데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보거든 빨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환난 때에 재물이 큰 짐이 될 것이다

모압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날이 되니 그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쌓아놓은 재물로 인하여 심판 날에 가슴을 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시냇물이 있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애돔으로 피난을 가기 위하여는 이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는 큰 재물이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 같이 지나갈 것을 위하여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시 39:6).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날에 이 재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것을 위하여 너무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약 5:1 - 3).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고장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3.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다

늑대가 덤벼들어서 피했더니 그 곳에 사자가 기다립니다(9절). 죄를 짓고 간신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소리를 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는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그들의 곡성이 에글라임과 브엘엘림에까지 울렸다고 했습니다. 온 땅이 울음바다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에글라임과 브엘엘림은 모압의 수도인 모압 알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 그 곳에 곡성이 들리는 것은 온 동리에서 곡성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앗수르나 블레셋, 혹은 더 강한 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죽으면 펄펄 끓는 지옥 불이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압에 주신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경고를 들은 사람은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고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둘째, 멸망은 하룻밤 사이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을 인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바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회개, 인내, 승리, 결심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로 인하여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거니와 원망, 불평, 시비의 눈물을 흘리면 그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항상 밤이 없는 하나님 품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안됩니다.

다섯째, 불의하게 쌓은 재물,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쌓은 재물은 환난 날에 고통스런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사람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사 15:6 - 9)

이종윤 목사

99년엔 이렇게

올해에도 빨간 옷을 입고

신순우(집사, 안내위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일까 궁리하다가 현관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예배 안내위원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나이깨나 든 사람이 흰 넥타이에 빨간 윗도리(나는 원래 빨간 색을 좋아하지 않음), 여름에는 흰 바지, 겨울에는 검정바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 꼭 호텔 벨보이 같아서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 채신 없다고 할 것 같아 쑥스럽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의 그 겸손한 자세를 본받기 위해 이 자리를 지원했었다.

한여름에는 땀을 흘려 천정에 선풍기라도 한 대 있었으면, 한겨울에는 등뒤에 히터라도 한 대 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 보았으나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수백명의 성도들을 맞이하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주보를 받을 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는 사람, 한 손은 주머니에 질러 넣고 한 손으로 받는 사람, 수고한다며 미소를 띠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한 표정을 짓는 사람,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될 것을 매번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뛰어오는 단골 지각생 등 각양각색의 태도를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된다. 아직도 목이 곧아서 허리를 더 굽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얼굴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지나 않은지, 성도를 맞이하는 태도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아직도 호텔 벨보이로 보일까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등 반성해 본다.

새해부터는 젊은 집사를 현관에 배치하고 나는 예배당 안에서 안내하도록 위치가 바뀌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도 떨지 않게 되어 대단한 영전(?)을 하였으나 감사(監事)라는 내 직책대로 항상 감사(感謝)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한 해를 보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기도로 마라와 엘림의 축복을

최재춘(집사, 루디아1 회장)

올 한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서울교회와 루디아1 전도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여전도회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전 건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허물어진 국가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회원들의 각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겐 쓴 물밖에 없었으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드리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 단 물로 변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종려나무 칠십 주와 물 열두 샘이 있어 거기에서 장막을 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루디아1전도회는 기도로 엘림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 배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모임에서 보기 어려웠던 회원들에 보다 깊은 관심을 쏟고자 합니다. 일일이 전화도 하고 심방도 좀더 자주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새가족부를 거친 새로운 가족을 꼭 회원으로 등록시켜 즐거운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 다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문병과 심방을 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한 루디아 가족이 되려 합니다. 더욱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서 더 나아가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도 찾아가 열심히 도우고자 합니다.

이제 루디아1전도회는 연중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모이는 날을 새로 정했습니다. 1월12일, 2월9일, 3월16일, 4월13일, 6월15일, 7월13일, 8월10일, 9월14일, 11월16일은 루디아1 전도회로, 5월과 10월은 연합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 나누고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세련된 주차질서, 성숙한 천국시민

서문석(장로, 제 8교구)

교회의 각 부서가 다 중요하고 어느 한 곳이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이지만 특별히 내가 차량관리부에 애착이 가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봉사하면서 직접 어려움도 겪어 보았고 보람도 느꼈기 때문인 것같다.

언젠가 새가족환영회 때 "차량관리위원의 친절한 안내에 이끌려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한 새가족의 말을 들으며 그간 모든 어려움과 피로를 다 잊을 수 있었고 봉사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주일에 차량관리와 이동주차를 하다 보면 한여름엔 뜨거운 태양 아래선 땀으로 온몸을 적시고, 한 겨울엔 귀가 시려 감각이 없어질 정도가 되지만 기쁨에 가득 차 교회로 달려 오시는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과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고마와 하시는 모습을 뵐 때면 오히려 은혜 충만한 현장이 되어진다. 조용히 다가와 과일 하나를 손에 꼭 쥐어 주고 가시는 성도님, 떡을 싸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 차량관리위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어 자리를 옮겼지만 그간 느낀 점을 적으면서 성도님들께 몇 가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가능한 한 고정 자리를 고집하시지 말고 주차관리 위원의 지시에 따라주시면 좋겠다. 주차 시에는 주차관리위원들에게 열쇠를 맡겨 주시고 중간에 일찍 가셔야 하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동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해 주시길 바란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계실 분들은 가능한 주차장 안쪽이나 교회 가까운 주차장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해 주시고, 교회에 근접한 주차공간은 새가족에게 양보해 주셨으면 한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주차관리위원을 찾으실 때 조금 따뜻하게 불러 주시면 어떨까? 때론 아저씨(?)라고 불림을 당할 때는 당혹스럽기도 하다.

1999년도에는 천국시민답게 좀더 성숙되고 세련되게 주차 질서를 지키며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 보자.

위원회에 듣는다 - 교구위원회

우리 다락방부터 고침 받읍시다!

정병무 (장로, 교구위원장)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음성 "내가 너희를 고쳐 주리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우리 다락방들이 고침을 받는 한 해가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1. 고정 관념의 틀을 벗어 버리자

"우리 교회만, 우리 교구만, 우리 다락방만" 이라는 울타리를 허뭅시다.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 자리를 함께 하는 다락방을 만듭시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제단을 쌓은 후 격의 없는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교회에 흥미를 갖도록 하여 전도의 길로 이끕시다.

2.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 보자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본을 보입시다. 다락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거듭 태어나 서로가 남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합시다. 이로써 우리 다락방이 성숙하게 되어,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내뿜어 빛과 향기를 찾아오는 내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새가족을 영접하고 관리하는데 거부감이 없게 하자

초신자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신자를 잘 구분하여 격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초신자들은 우리가 환영한다는 뜻에서 가정이나 직장을 일방적으로 방문할 경우 당황스럽게 생각할뿐 아니라 거부감마저 갖게 될 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선 이해를 얻고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서서히 한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기초가 정립된 새가족은 오히려 신속하게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심방과 영접의 절차를 거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아가 봉사를 권면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다져 가도록 인도하여, 서울교회 가족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다락방의 본질을 벗어나지 말자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여 그 아홉 가지 열매를 거두기에 앞서 우선 가장 기초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이라도 얻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다락방으로 고쳐 나갑시다.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칭찬을 하는 연습을 합시다. 남의 허물을 덮어 줄치언정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절제를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일이나 가정일이나 신상에 관한 모든 것들에 이런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감사와 기쁨안에서 자원하는 자세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자

과부의 두 렙돈 연보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다락방 가족이 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부터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이 금년에는 더욱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의 은총이,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함이, 침윤에 빠진 믿음에는 말씀의 부요함이 주어져 날로 새로워지는 다락방으로 거듭 태어납시다.

스데반회 임역원 조직 완료

스데반회(간사장 이완형 집사)가 임역원 조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스데반회는 총무 김영주 집사, 서기 신용식, 최형렬 집사, 회계 오광한, 오형철 집사, 친교부 김인수, 이상호 집사, 봉사부 홍정선, 최용걸 집사, 선교부 서춘식, 우지원 집사, 예전부 박두영, 이승우 집사 등으로 조직을 꾸려가게 됐다.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이광석 선생 새로 초빙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가 새로 부임한다. 박정선 집사가 미국 템플대학 초빙교수로 1년간 떠나게 됨으로 이광석 선생을 초빙케 됐다. 이광석 선생은 서울음대 성악과와 독일, 이태리 등에서 수학한 후 영국 런던 음악대학에서 지휘를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월) 본 교단 기독교대학발전위원회, 19일(화) 연세대 신과대학, 21일(목) 군복음화후원회, 22일(금) 기독교교도소이사회 등에 참여 또는 설교한다.
* 이순환 · 김정현 부목사는 지난 10일자로 사임하고 속초중앙교회와 광성교회로 각각 부임했다.
* 마리아전도회 회원들은 18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 이번 주 점심식사는 최종천 성도 · 이혜경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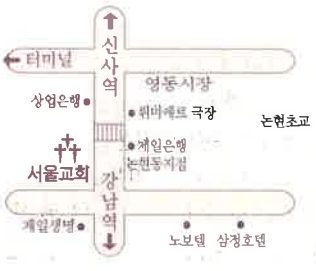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100교회 운동을 위해
2. 교역자들을 위해
3. 각 부서 새 일꾼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